

중국 궁중에서 애용하는 녹용주

홍문화/서울대 명예교수

녹용에 관한 약효를 좀더 더듬어보면 『몽설(夢泄)과 설정(泄精)을 그치게 하며, 근육과 뼈를 장(壯)하게 하고, 노인으로 하여금 새로 치아가 나게 하고 흔들리는 이를 단단하게 하며(固齒), 여자의 하혈과 적백(赤白), 대하증을 고치며, 신허를 보하고 허리와 음부의 냉한 것을 다스린다』 등의 지극히 매력적인 문구가 나열되어 있다.

소련에서는 일찍부터 녹용의 알콜 추출액을 약용으로 상품화하여 판토크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날렸다. 그것 역시 약효는 일반 허약증 및 강정(強精)이라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분상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실험에서 부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음이 밝혀지고 부교감신경의 흥분은 성기의 혈관 확대와 관계가 있어 부교감신경과 강정 효과를 서로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녹용은 강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약학자 중에도 녹용이 혈중 콜레스테롤 양에 미치는 작용을 연구한 분이 있다. 또 녹용에 적혈구의 신생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동물실험에서 밝혀지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녹용의 무슨 성분이 그와 같은 약리작용을 나타내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지견(知見)이 없다.

최근 동물의 각질을 가수분해시킨 성분 가운데 생리활성이 있는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연구도 있으나 워낙 단백질 계통의 연구가 힘

들다 보니 아직 뭐라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 않을까.

우리 음식에 도가니탕·꼬리곰탕·족탕 등 소나 돼지의 뼈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교질(膠質)·콘드로이틴·하이알루로니테이스 등 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 농후한 미각이 문자 그대로 『생정(生精)·보수(補髓)·강근(強筋)·건골(健骨)』의 효력이 있을 성 싶어 여름의 스태미너식으로 십상이다. 녹각(鹿角)을 고아서 만든 녹각교(鹿角膠)라는 것도 녹용만은 못하지만 강장제로 사용된다고 한다.

사슴은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철두철미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피·살·태아·꼬리·힘줄(筋) 심지어는 페니스와 정액마저 귀물로 치니 사슴은 참말로 신비하다고 아니할 수 없겠다.

하여간 옛날 중국의 궁중에서 가장 귀하게 애용된 강정 강장제가 이와 같은 사슴 계통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녹용주를 만드는 처방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소주 1ℓ, 녹용 10g, 산약(山藥: 서여라고도 하는 마의 땅속 뿌리) 30g, 꿀 100g을 병에 담아 약 1개월만 지나면 마실 수 있는데 어느 나라나 국민 소득의 향상과 비례하여 보건의약의 소비고도 높아지게 마련이므로 각자의 체질에 맞는 이런 식의 보건의약을 가정용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생활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겠다.*

「하준 동의보감」에서 발체(도사출판 동지)